



진주교 서울대교구 응암동성당

성모 성심 성당 제1978호

(03470)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좌로 200 (응암동)

사무실 02-2021-2700~1 Fax 02-2021-2727
주임 신부 한재석 안드레아 02-2021-2703
보좌 신부 신현범 베드로 02-2021-2705
수도자 임 마리아, 남 마리아 02-2021-2706~9
총회장 김경태 프란치스코 010-8867-8383
연령회회장 석종석 니콜라오 010-6273-5086
응암동성당 홈페이지 : 굿뉴스 클럽 [응암동성당]
<http://club.catholic.or.kr/eungamdong>

전례 및 주일학교 안내

주 일 미 사	어린이 토 오후3시	특전 토 오후6시	일반 주일 오전6시	중고등부 주일 오전9시	교중 주일 오전11시	청년 주일 오후6시
평 일 미 사	월 오전6시	화 오전10시 오후 7시	수 오전 6시 오전10시	목 오전 6시 오후 7시	금 오전 6시 오전10시	토 오전10시
고해 성사			매 미사 30분전 ~ 10분전			
유아 세례			사무실 문의			
혼인 면담/혼인(관면) 성사			사무실 문의			
성가정 미사			매 월 첫째 주일 오전 9시			
성 시간			매 월 첫째 목요일 오후 7시 미사 후			
성모신심 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추모패/축복패 봉헌자 위한 미사			매 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0시			
봉 성 체			별도 공지 시까지 없습니다.			
주일학교 미사		초 등 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중고등부	매주일 오전 9시			

이벤트 이번 주일은 헌미헌금 2차 헌금을 봉헌합니다.

헌미헌금은 지구촌 인종, 종교, 국적을 초월하여
고통 받는 전 세계 이웃을 돕기 위해 지원합니다.

다음 주일(5월30일)은 청소년주일 2차 헌금을 봉헌합니다.

서울대교구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미래 지향적인
신앙과 인성교육의 기본적 자원인 교리교재 연구 및
보급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2021년 성모의 밤

· 때·곳: 5월29일(토) 오후6시 미사 후, 대성전

☆ 성모의 밤 예식은 미사 끝나고 진행합니다.

☆ 성모의밤 감사예물 봉투는 대성전 앞에 준비합니다.

성모의 밤 개인 및 단체 꽃 봉헌은 헌금 봉헌으로 대신합니다. (사무실 접수)

꽃 봉헌은 지나친 꽃 낭비를 자제하기 위하여 헌금 봉헌
으로 대신하고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성전 안에서 예절을 지켜주시요.

1. 성전에 머무는 동안은 몸가짐을 단정히하고
마음을 주님께 향하며 정숙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미사 시작 5분 전까지는 미리 오셔서 준비하시고,
미사에 늦으신 분은 대성전 성가대석으로
올라 가시고 영성체는 아래층으로 내려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교중미사 제외)
3. 대성전 앞 로비에서 큰소리로 대화를 하면 성체조배
중인 교우들에게 방해가 됩니다.
대화는 편하게 1층 엠마오홀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어린이 세례, 첫영성체 교리 신청

· 대상 : 세례를 받지 않았거나 첫영성체를 하지 않은
초등부 3학년~6학년 어린이

· 교리 일정 : 7월3일(토) ~ 9월25일(토)

(7월 토 / 8월 수,토 / 9월 토)

· 접수 : 사무실

· 첫영성체 어린이 첫모임 : 6월26일(토) 오후4시

· 첫영성체 부모님 첫모임 : 6월26일(토) 오후6시 미사 후

☆ 첫영성체 예식일 : 10월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합니다.

추모패/축복패 봉헌자를 위한 추모와 축복 미사

5월29일(토) 오전10시, 대성전

응암동성당 추모와 축복의 공간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추모와 축복의 패 신청

· 세상을 떠난 이들(추모패)과 살아있는 가족과
이웃(축복패)을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는 공간입니다.

· 추모와 축복의 벽에 성함을 새긴 패를 부착하며,
본당 공동체는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10시
대성전에서 봉헌자를 위한 합동 추모와 축복 미사를
봉헌합니다.

· 타 본당 교우, 비신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사용기한 : 무기한 (단, 20년 이후 추모와 축복 공간
의 재건축 등,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응 압 동 성 당

구역 청소

5월 8(5)구역, 9(4)구역 매 주 월요일 오전9시

본당 리모델링 기금 마련 위한 총구역 판매

- ① 열무얼갈이김치, 곤드레 나물, 밀반찬,
돼지감자 전액, 참기름, 들기름, 건어물 등
- ② 신안 소금 20Kg 30,000원 (간수 잘 빠짐)

마스크 판매 : 1상자(50개입) 5천원

물품 기증 감사합니다.

- 막장 한말 : 김종옥 데레사
- 마스크 3만장(50개입 600상자) : 익명

전신자 '1인 1구좌 봉헌하기 운동'에 참여합니다.

본당 리모델링 기금 마련을 위해 '전신자 1인 1구좌 봉헌하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우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분야별 재능을 기부해 주실 교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본당 문화체육분과에서 교우들이 함께하는 문화, 체육, 친목 활동 단체 조직 및 활성화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등산, 색소폰, 꽃꽂이, 당구, 바리스타 등의 분야에 재능을 가진 교우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소중한 재능을 나누어 주실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분과장 ☎ 017-229-3636

성소후원회 활동 회원 모집

- 대상 : 성소후원회에 관심 있는 모든 교우
- 봉사 내용 : 매주일 미사 전·후 후원회비 접수
- 모집 기한 : 5월30일(주일)까지
- 문의 : 성소후원회장 010-8887-6686

의류 및 폐지 수집 안내

본당 리모델링 기금조성의 일환으로 남성 총구역회에서 의류 및 폐지(책 위주)를 수집합니다.

반드시 책과 의류만 성당 뒷마당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모아 주시고 다른 물품은 가져다 놓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무금 납부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 ① 정성을 다해 책정하고 매월 초에 납부해 주시며, 본당 발전과 성장을 위해 조금 더 책정 바랍니다.

- ② 교무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봉헌금 등은 텔레뱅킹, 은행 자동납부,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송금계좌 : 우리은행/천주교서울대교구/138-04-110019

우리들의 정성

주일미사 참례 701명

주님 승천 대축일 헌금(5/16)	2,979,000원
홍보 주일 2차 헌금(5/16)	669,000원
리모델링 3차 헌금(5/16)	846,000원
주일헌금, 리모델링 헌금 (5/10~5/16 주일헌금함, 송금 등)	25,000원
교무금(5/10~5/16)	6,880,000원
합계	11,399,000원

감사헌금(5/10~5/16) 850,000원

김순자 데레사 10만	김현주 미카엘라 5만
이복수 마리아(선종) 30만	이희정 요안나 5만
김주석 아만도 10만	이숙자 마리아 20만
서정희 수산나 5만	

빈첸시오회 기금(5/10~5/16) 413,000원

성소후원금(5/10~5/16) 1,063,000원

백신 나눔(5/10~5/16) 860,000원

'1인1구좌' 봉헌 약정 및 납부 현황

약정 : 131가정 308구좌	80,390,000 원
납부 (5/10~5/16) :	1,000,000 원
납부 누계(2021.02.17.~2021.05.16) :	14,750,000 원

본당 리모델링 약정 현황 (84.66% 납입)

총 누계 2018.09.09.~2021.05.16 633명 1,451,040,000원

본당 리모델링 봉헌금 납부 현황(가나다순)

5월10일(월)~5월16일(주일) 20명 2,067,000원		
김성운 요한보스코 박효윤 젤마노 이연임 안젤라		
김수만 아오스딩 백영철 빅토리오 정성미 프란치스카		
김은숙 안젤라 백종우 요왕 정은서 글라라		
김정분 말가리다 신수경 루치아 차준숙 루치아		
도영자 요안나 윤숙경 데레사 최영희 M.프란치스카		
박윤정 아네스 이나영 안나 최정이 베드로		
박정자 아네스 이세열 베로니카		
약정자 봉헌 2018.9.9~2021.05.16 1,228,386,638원		
총 누 계 2016.2.1~2021.05.16 1,514,120,250원		

본당 리모델링 공사 부채 현황 (2021.05.16 현재)

총 차입금	31억원	남은 차입금 현황 (23억원)	
차입금 상환	8억원	사목기금회	12억원
차입금 잔액	23억원	명동 신협	11억원

기도 바구니 "함께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선종 교우 이복수 마리아, 윤정이 헬레나

"주님, 이 교우들의 영혼이 주님의 자비로 평화의 안식을 얻게 하소서."